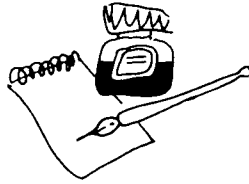


편집 후기



‘언제나’라는 단어를 성립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언제나’란 것은 곧 책임과 약속이기 때문이다. 나이먹어감에 따라 작성해서 벌린 일은 아니지만 ‘어쩌다보니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진다. 또 ‘언제나 잘 하리라’는 기대를 받기때문에 그 일을 즐거이하 기 보다는 쫓기듯 할 수 밖에 없다.

신날 때는 한달에 아니,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만들어 좋은 내용,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다가도 그렇지 못할때 1년 4번발간도 괜히 그랬나 싶게 헉헉대게 된다.

‘이번엔 괜찮더라’는 말씀 들으려 편집도 약간 바뀌고 했는데 ‘언제나’처럼 인쇄해놓고 보면 낯설고 쑥스러울게다. <韓>

소련에 대통령이 태어나고 동서독간에는 통일을, 나머지 동구권에서는 공산주의를 포기한다는 등의 대변혁이 간단하게 벌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얼마전 만해도 무역흑자로 즐거워 하더니 지금은 예상되는 적자와 경기침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말그대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실감하게 한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니 경제니하는 골치아픈 문제를 접어두니 괜히 힘이 쏙고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아 즐거워진다.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가온 새봄에는 「방재와 보험」 애독자 및 집필진 여러분을 찾아갈 즐거운 일을 기대하며, 따뜻한 봄내음에 그동안 찌든 겨울이나 털어 보자. <建>

투고를 환영합니다

계간 「방재와 보험」은 방화관련 종사자는 물론 보험관계자와 방재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방재와 보험」지에 유익한 내용이라면 분량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내용

- 화재보험의 손해보상으로 성공한 사례
- 소방관의 체험담 또는 소방수기
- 화재현장 목격담
- 시, 수필, 수기, 폰트 등 문예작품

□ 보낼 곳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35-4
한국화재보험협회 홍보부
「방재와 보험」담당자 앞

防災와保險

<통권 제45호>

- 등록/바 - 827 호 (1973 10월11일)
- 발행/1990년 4월 1일
- 인쇄/1990년 3월 25일
- 발행겸 편집인/이상규
- 인쇄인/성전문화인쇄/강재수
- 사진식자/두림기획
- 발행처/한국화재보험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편집실/ 직통 780 - 8156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